

익산시 역대급 더위 맞선다

건강한 여름맞이 종합대책 돌입... 시민피해 최소화 총력 TF팀 가동 그늘막 145개 · 쉼터 494곳 운영, 노면살수도

익산시가 올 여름 이른바 '역대급 더위'가 찾아온다는 기상 전망에 대비하여 시민들 건강한 여름 맞이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폭염특보 발표시 시민의 소중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 안전과정을 팀장으로 하는 폭염상황관리 TF팀을 신속히 가동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횡단보도 그늘막은 작년 대비 55개를 추가 설치해 총 145개를 주요 도로에서 운영한다. 그늘막의 크기는 지름 3 ~ 5m에 달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머무르기에 충분할 크기이다.

또한 그늘막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태풍 등 기상 변화 시에는 신속하게 그늘막을 접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보건지소, 금융기관, 스마트폰수리점 등 494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어르신 및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도 힘을 보탠다.

무더위쉼터 위치는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 익산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도로 노면의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 살수도 실시한다. 차량 통행이 많은 인북로~무양로~남북로 등 2개 구간을 정해 살수차 2대를 집중 운행해 살수한다. 이는 도로면 미세먼지 부유 억제·재 비산 방지 및 노면 온도 낮추기에도 효과적이다.

폭염 특보가 발표되면 재난도우미로

지정되어 있는 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건강증진서비스 인력을 활용하여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활동도 추진한다. 재난도우미는 폭염 특보 시 무더위쉼터 및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안부전화를 하는 등 각종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서 폭염시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많이 마시고, 어지러움과 탈진·두통 등 열사병 증세가 있을 경우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응급환자 발생시는 119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시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총 사업비 750백만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130백만원으로 자가발전기, 제빙기,

환풍기, 안개분무기, 쿨링패드, 쿨링시스템냉각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총 사업비 53백만원으로 3.214kg의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양식장 지하수개발 사업에 총 사업비 133백만원을 투입해 중형관정 설치를 지원하는 등 폭염에 의한 가축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폭염이 지속되면 농작물 생육 부진이 발생하여 수량 감소, 양분 결핍, 품질 저하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농작물 고온 피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필요하다. 이에 시는 농가 교 육시 폭염 피해 예방 관리를 강조하고 폭염이 발생할 경우 농작물 재해 피해 신고를 받아 피해 현황을 현장 점검하며 지원책도 강구한다.

이 밖에도 건설사업장 및 농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더운 시간대에는 잠시 쉬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제 운영을 적극 유도하고, 폭염 피해 예방 홍보용 부채와 행동요령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가 올 여름 이른바 '역대급 더위'가 찾아온다는 기상 전망에 대비하여 시민들 건강한 여름 맞이 위한 폭염대책 종합 대책에 돌입했다.

재난기본소득 착한소비로 익산 전통시장에 '웃음꽃'

선불카드 전체 359억여원 중 75.2%사용... 지역내 숨통

익산시가 코로나19 사회 재난을 극복하고자 긴급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전통시장에 활성화되면서 상인들의 생업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과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 예산 총 383억원 중 지난 22일까지 359억여원을 지급했다.

익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 카드로 지급한 결과 시민들이 지역 내 가맹점에서 한 달여 동안 270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 전체의 75.2% 금액을 착한 소비 한 셈이다. 가맹점 업종별 사용금액을 보면 슈퍼·마트·편의점이 95억원(35.2%)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42억원(15.6%), 제과·정육·농수산품판매점 25억원(9.3%), 의류가방 17억원(6.3%), 주유비·레저용품비(5.1%)가 각 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생활에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 구입비에 주로 소비된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 5일장인 북부시장은 재난기본소득 덕분에 최근 한달 사이에 매출액이 평균 30~40%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시장의 특성상 장마철이 주 고객인데, 시행 초기 이들은 카드 이용에 익숙하지 않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북부시장상인연합회에서 카드 사용을 꾸준히 홍보하고 업소 대상으

로도 단말기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선불카드로 결제하는 손님이 꾸준히 늘어났다.

북부시장을 찾은 한 시민은 "선불카드 1장을 카드를 가지고 시장 안 80여곳에서 마음껏 구입할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유학선 북부시장 상인 연합회장은 "선불카드 10만원의 위력이 대단하다. 장날에 평소 주차장이 비어있던 데 근 한달 새 주차장이 꽉 채워졌고, 시장에 사람들이 북적거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 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지면서 모처럼 시장 상인들의 얼굴이 활기가 돌고 선불카드를 사용한 시민들은 웃음 띤 얼굴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시에 따르면 아직 미신청한 24억원과 미사용된 88억원이 골목 상권 소비로 이어지면 코로나19 침체된 시장 경기를 되살리는데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장은 "착한소비란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빠른 구매를 함으로써 상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지급처럼 시민들께서 착한 소비에 더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위험할 땐 경보기를 당겨주세요"

여학생대상 '안심지킴이' 배부

익산시가 지역내 여학생을 대상으로 안심지킴이(휴대용 호신경보기)를 배부하며 여성가족 진화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관내 32개 중·고등학교를 통해 안심지킴이 액세서리(휴대용 호신경보기) 8,700개를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만 13세~18세인 여학생 8,700여명 중(2019.12월말 기준) 중2~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1차 배부를 마쳤고 나머지 2,000여명에 대해서는 6월 중 2차 배부 완료할 예정이다.

호신용 경보기는 등·하교길 등 위험한 상황에서 직면했을 때 경보기의 고리를 당기면 경보음이 울려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같은 경보 시스템은 범죄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지근 거리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성 청소년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 공모에 선정된 호신용 경보기 배부사업을 불법 촬영 장비 단속 및 대여 사업과 함께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 및 노약자, 나아가 익산시민이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린 자세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다양한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추후 성과를 보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편의점 18곳, 음식점 2곳(24시간 영업점)에 대해 여성 피난처로 지정해 안심 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지역 소식통

육묘 알선창고 호응

군산시가 육묘알선창고를 운영하며 육묘실제 농가의 못자리 재설치 비용 및 노동력을 줄이고 적기이앙을 도울 수 있어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자 오는 6월 중순까지 농가의 남거나 부족한 육묘를 상호 연계해주는 '육묘알선창고'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육묘 알선창고는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모를 기술포급과 또는 읍면동농민상담소에 연락하면 육묘를 실패하거나 부족한 농가에 실시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관내 육묘장 200여동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고, 각읍면 상담소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해 임여모의 폐기를 막고, 육묘실제 농가의 못자리 재설치 비용 및 노동력을 줄이고 적기 이앙을 도울 수 있어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어청도 식수 공급

군산시가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청도에 안정적인 식수 공급사업이 추진된다. 군산시는 어청도 지역의 갈수기 고질적인 식수난을 항구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2억원(국비 22억원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기존 해수담수화 시설 개량하고 저수지 용수 활용을 위한 1일 100톤 규모의 정수장 시설을 추가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 10월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오는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함으로써 2023년 본격적으로 어청도에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영환 수도사업소장은 "금번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식수 공급으로 어청도 주민 불편해소로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어르신 은퇴자, 청춘 놀이터 목공방에서 힐링을"

개소식 갖고 다양한 문화 공연

익산시에 노인 은퇴자를 위한 청춘 놀이터 목공방이 문을 열었다.

시는 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공모를 통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26일 청춘 놀이터 목공방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당선인, 최찬욱 전라북도 환경복지위원장, 이

한오 KCN 금강방송 대표이사 등과 익산 시민들이 참석해 1~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는 개소 축하와 기념식으로, 2부는 컷팅식과 청춘놀이터 목공방 라운딩, KCN 금강방송의 후원으로 박일준 외 6명의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청춘놀이터 목공방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고령 친화 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앞으로

익산 시민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와 문화 공간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남중동에 위치한 청춘놀이터 목공방은 55세 이상 주민등록상 익산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교육 과정 수료 후 목공방을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강좌로는 취미 여가반, 전문기(임문, 중급, 전문가) 과정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춘놀이터 목공방(063-918-654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